

## 미트웨어 2014 청년운동 트렌드 보고서 “내맘대로 청년운동할래” 컨텐츠

1. 일시	2014년 11월 7일 금요일 19:00~21:30
2.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 받다
3. 주제	청년운동의 현안과 트렌드,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논의
4. 진행자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김윤권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코나투스 대표)
5.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문유진, 오유진, 이진수</li> <li>·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 주은, 스밀라</li> <li>· 청년유니온 대학생팀 : 이기원</li> <li>· 서강대학교 생활도서관 단비 : 황인성, 정희윤</li> </ul>
<b>6. 내용</b>	
<p>1) 토론내용 속기록</p> <p>① 대학생 청년들의 학내 활동</p> <p>진행자 김윤권 : 이곳에 모인 대부분이 대학생인데, 대학교 내에서 자치공간 운동을 하는 단비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어요. 요즘 학내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학내 분위기(대학 기업화, 학생사회 분위기 등)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p> <p>단비 황인성 : 저희는 대학마다 있는 생활도서관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오늘 도서관 주간이라서 도서관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도서관 내에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p>	

그런데 다른 분이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단비는 이런 강요된 공간이 아닌 대안적인 공간을 원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강요된 공간적 압박감에서 해방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나 학교나 학생회 모두 저희의 활동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죠.

단비 희윤 : 대학기업화의 문제들이 참 많죠. 4년째 투쟁해도 학생자치공간을 얻어낼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학내 청년운동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활동의 역량이나 동력이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요즘엔 각 학생들이 파편화, 개인화되고 이기주의가 심화되어 동력이 모아지지 않아요. 서강대 학생들이 모여 학교 기업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으나 꿈쩍도 하지 않더라구요. 다른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고민과 생각들이 들었죠. 그래서 다른 학교나 외부의 단체들과 끊임없이 연대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밀려나 외부에서 연대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죠.

단비 황인성 : 서강대학교에 학생회관을 새로 건립하는데 그것이 단적인 학교기업화의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학생회관인데 그것을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는 학교의 태도가 굉장히 답답했어요. 학교와 학생 사이에 기업이라는 또 다른 존재가 관여하고 끼어있는 상황이죠.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 대학기업화 등 다양한 학내 문제들이 있는데 대학의 목적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은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스밀라 : 학내 자치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한 인식이 존재하죠. 학내에 자치라는 이름을 붙일 기관이나 단체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구요. 학생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것부터가 가장 큰 문제예요. 학생들의 인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에 따라 운동의 방식이나 분위기도 달라져야 한다고 봐요. 학교는 졸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장소잖아요. 학내 자치활동의 경험들이 선배가 졸업하면 연결되지 않고 단절되는 문제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주은 : 그래서 학내활동에 있어서는 경험이 이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학생사회의 역사나 전통이 이어져야 하고, 생활도서관이 그런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해요. 학생회나 학생자치활동 관련 문서나 세미나 자료들을 정리하는 그런 기관이나 역할을 하는 곳이 아무데도 없잖아요.

그리고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주체에 대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 청년 중 80%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생인 청년들의 상태를 보면 총체적인 빈곤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런 자치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 역시 생활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친구들은 실제로 활동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요.

대학생은 요즘 취업준비생으로서의 정체성에 갖혀 있어요. 계속 무언가를 준비하고 시험을 봐야만 해요. 대학서비스의 소비자로서 대학을 바라보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자꾸만 바꾸고 자치활동을 하는 것이 때론 피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접근해서 소비자불만의 형태로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학우들의 공감을 얻기가 더 수월한 현실이죠. 등록금을 내리자가 아니라 등록금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현재의 빈곤상태를 구제할 수단이자, 미래에 대한 자원과 수단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소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요.

청년유니온 대학생팀 이기원 : 청년유니온 대학생팀에 작년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각 학교 대학모임을 만들었던 친구들이 활동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주변 지인들에게 “시간 아깝게 그런 거 왜하냐?” 등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들으며, 활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겨났죠. 동참은 하지 않더라도 인정은 해줄 것이라는 지인들과 친구들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대학생 현장실습생 문제. 한 학교에서 250명이 차출되었는데 저임금에 임금까지 체불된 상황이었어요. 해당 학교 학생회와 연대하려 했으나 학교가 개입하면서 잘 진행되지 않았죠. 개별 학생들을 만나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려 했으나,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대하기 어렵더라고요. 서로 뭉치고 연대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점점 더 학내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지대학교 총장비리 문제 때문에 총학생회가 수업거부를 했는데요. 교수들이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자 수업 거부율이 30% 밖에 되지 않았고, 수업을 거부했던 학생들이 오히려 학생회에 어떻게 책임을 질거냐고 요구하는 상황까지 갔죠. 학생들의 연대라는게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학은 이미 '취업학교다'라는 생각을 하는게 마음이 편해요. 대학 내에서 실패와 절망을 많이 맛보고 있죠.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이진수 : 저는 학교에 애정이 별로 없어요. 신설과라 선배도 없는 상황이구요. 총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여론이 좋지 않아요. 대학이라는 공간이 자치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어요. 친구 따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에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대학친구들은 학내활동도, 시민단체 활동도 관심들이 없어요. 학우들이 인식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괴리감이 존재하죠. 농담 삼아 “돌고래 보호 잘하고 있냐?”고 물을 정도예요. 학우들이 인식하는 온건한 시민단체라는게 비정치적인 동물보호 같은 활동을 하는 곳이죠.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오유진 : 사회복지학 전공이라 공부하면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학교가 전혀 다른 단과대학을 통폐합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학생들도 수업거부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주은 : 교수님들도 사실 학교에 고용된 사람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내 문제에 있어서 전략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② 청년들의 노동

진행자 김윤권 : 이어서 청년들의 노동문제로 이야기를 넘어가보죠. 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시는 이기원님께서 청년들의 노동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청년유니온 대학생팀 이기원 : (청년유니온의 활동들 소개 : 피자 30분배달제 폐지. 대학생 현장실습생 문제와 청년감동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요즘 활동 중) 이동통신사 상담원의 경우 해지접수를 받으면 벌점이 깎이고, 고객을 유치해야 하는 그런 패널티가 있구요. 기업 내 기자단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의 기획들을 빼앗아 와서 기업들이 상품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원증 목걸이 색깔로 계약기간을 구분하는 방송사도 있죠. 일본에서 진행되는 블랙기업 대상이 있는데요. 나쁜 기업들의 사례를 찾아 블랙기업 상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청년유니온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단비 황인성 : 사실 저는 공대거든요. 인문대, 사회대 친구들보다는 걱정이 적은 편이에요. 취업률이 높은 학과라서 개인적인 고민은 적은편이죠. 삼성에 대해서 좋은 기업이 아니라는 인식은 모두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삼성맨을 시켜주면 하겠다고 말하죠. 나쁜 건 알아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청년유니온이나 알바연대가 하는 "너희가 호구다, 알면 당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는 캠페인들이 참 의미 있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단비 희윤 : 대학생의 정체성이 소비자와 취준생으로 전락해버린 현실이죠. 대부분의 청년들이 알바를 통해 학비나 생활비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청년노동의 문제가 모두의 의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의문이 있어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스미라 : 요즘 청년들은 학교를 다녀도 나를 보호해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두려움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와 현실이죠. 공동체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회 같아요.

### ③ 청년정책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 우리 단체의 핵심은 교육사업에 있어요. 미래세대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청년세대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죠. 시민단체에 시민이 없고, 활동가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맞는 정책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슈화하는 여러 활동들을 병행하고 있어요. 청년담론과 정책들이 지자체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청년유니온이나 민달팽이유니온과 같이 청년단체들과 연대하여 청년정책을 입안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대학생 교통비할인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를 통과시켰죠. 예산부족을 이유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청년 부채 문제들도 심각하죠. 청년 세대들이 노동시장에 나오자마자 빚을 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일자리 질에 상관없이 취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어요. 700만원 때문에 자살한 여학생도 있구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 사안과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스펙이 되지 않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대학생들의 현실, 그 대학생, 청년들과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사회를 바꿔낼 힘을 조직하고 사람들을 모으기에는 어려운 현실이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청년들끼리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주온 :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가 복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소한 주제예요.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해 준다는 게 해당 개인과 그 삶에 어떤 변화를 바꿔낼지 상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소득이 불러일으킬 상상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박근혜정부가 대선에서 노령연금을 주장했는데, 당선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것만으로도 많은 노인들이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만큼 기본소득 형태의 정책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2016년 총선거, 2017년 대선이 있는데, 기본소득을 통해 변화할 세상에 대한 상상력 패키지를 구성하여 사람들에게 알릴 생각입니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스밀라 : 기본소득이라는 건 국가가 한 달에 얼마씩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처럼 내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개인이 되는 것이 요즘 청년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 세상에 시민이라는 존재가 없고, 소비자만 남아있는 형태인데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개입하지 못하고, 소비만 하는 상황이죠. 이제는 소비자라는 형태를 벗어나 내 삶을 기획할 수 있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테이블들을 구성하고 이야기할 생각이예요.

#### ④ 청년운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

진행자 김윤권 : 앞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암울하네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주은 : 각자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중요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계속 네트워크를 만드는 활동이 중요하고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때론 모이고 만나서 함께 연대하는 것이죠.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 대학생들이 관심은 없으나 관심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요즘 대학생들은 "왜?"라는 질문에 답이 주어져야 하는데, 기성세대의 운동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죠. 운동방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당위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이성

적인 설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분야의 단체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단체들이 상황에 따라 함께 대등한 관계에서 연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청년유니온 대학생팀 이기원 : 감정노동이나 현장실습사례들을 연구하며 블랙기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 왜 없어져야 하는지 논의와 설득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최저임금 투쟁 매년 하고 있지만, 인상율을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의미가 있죠. 감정노동자들은 큰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민과 고충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는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대담론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제 생활의 문제부터 하나씩 해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스밀라 : 스스로 활동가라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고, 생산자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요즘 청년들은 예전과 다르게 기반이 없죠. 내 삶이 팍팍해서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활동가 즉 생산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돈이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중요하구요. 청년들이 자기 삶이 어그러지면서까지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생산해서 자기 삶을 바꾸고 싶은 청년들은 많지만, 일을 하면 시간이 없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김윤권 : 오랜 시간 의미 있는 토론을 진행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 토론내용 정리

- 학교와 학우들의 무관심, 개인화와 파편화된 학내 사회, 이기주의의 심화, 학내운동 경험의 단절 등으로 학내 자치활동이 어려움
- 학내운동과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좌절감 또한 존재
- 학우들의 인식 변화, 대학생들의 정체성이 소비자와 취업준비생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학내 운동방식 변화의 필요성 인식
- 열악한 청년노동의 실태. 청년노동의 의제가 모두의 의제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 공유
- 청년정책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육과 설득의 과정.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당 문제를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함.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기획하고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기본소득의 중요성 공유
- 향후 청년운동은 각자의 영역과 자리에서 묵묵히 활동을 진행하며, 필요할 때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자세 필요
-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실제 생활의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작은 것부터 설득하는 태도가 필요